

특화사업 · 참여증진 등... 노인복지 '새바람'

종로노인복지관 · 서울노인센터,
2월 18일 '2016사업계획' 발표



종로노인복지관은 2월 17일 서울 부암동에 위치한 무계원에서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월 18일 관내 3층 TOP작은공연장에서 '201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 종로구 노인복지시설의 '양대산맥',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노인복지센터의 2016년 사업계획은 무엇일까? 2곳 시설은 각각 '특화사업 주력'과 '노인참여 증진'을 목표로 삼았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이하 종로노인복지관)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종로노인복지관만의 특화사업 양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종로노인복지관은 2월 17일 서울 부암동에 위치한 무계원에서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은 지난해 종로노인복지관이 최초로 시도한 '종로 장(醬)축제', '서울시니어 연극제' 등의 프로그램을 지역형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신(新)노인 문화'의 지평을 열겠다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한 "지역밀착형 4대 노인문화 주도사업"은 △전통문화에향사업 사업 '대학노애(老愛)' △관광문화해설 사업 '골목길해설봉사단' △공예문화향유 사업 '상상밴드' 등이다.

특히 전통문화에향사업인 '종로·장금이'는 어르신 · 지역주민 · 청소년 등이 함께 장을 담고, 장제현관 및 장카페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세대가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할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종로 장(醬)축제' 서 첫 선을 보였으며, 올해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6,000만원을 지원받아 더욱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종로노인복지관은 올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플러스스카페-2호점' 개장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플러스스카

페-1호점'은 종로구청 본관 1층에 위치하며, 어르신 바리스타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해경 종로노인복지관 부장은 "여러 곳이 운영상 난고로 문을 닫고 있지만 종로노인복지관 '플러스스카페'는 지난해 수입 2억7000만원을 달성하며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에 어르신들의 급여도 원년대비 약 33% 증가시킴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자기공정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화(花)가 자란다'를 실시한다. '화(花)가 자란다'는 원예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우울감 또는 분노조절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재)아름다운동행으로 부터 '2016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관장 정관 스님은 2016 사업계획으로 '소통 중시' 전략을 드러냈다. 정관 스님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와야 한다면 1차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욱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용자 ·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원공유를 통한 협력적 복지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 강조했다.

종로노인복지관, '대학노' 기반 '지역밀착 특화사업' 추진
서울노인센터, "노인이 주체" 어르신 기획단으로 직접 참여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는 '노인, 선배시민이 되다'는 큰 기조하에 센터 이용 어르신들의 주체적 참여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2월 18일 관내 3층 TOP작은공연장에서 '2016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선배 시민'이란 사업운영전략을 중심으로 한 8가지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노인, 선배시민이 되다'는 공동체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을 '선배'로 삼아 어르신들의 주체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 취지를 살려 지난해 1월 실시된 서울노인복지센터 설맞이 행사 기획 과정에도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사업방향은 △노년의 일상, 배우고 익히며 배려하다 △노년 문화, 선배시민을 이야기하다 △노년의 꿈, 종로서 펼치다 △노인복지의 실천, 연구하다 등 8개 항목이다. 세부적으로는 탐골문화예술학교,

인생학교, 영화학교, TOP방송국 등 기존 프로그램들을 보강 · 확대 실시하되, 각 프로그램마다 어르신들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올해 개관 1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6~10월 중 세미나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기획출판 '음식학교-밥은 복지다' 발간을 앞두고 있다. 도서 '음식학교-밥은 복지다'는 센터 경로식당, 밥의 의미, 요리교실, 공유부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내용이다.

한편,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센터 이용 어르신 230여 명이 참석해 센터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민철기(80)씨는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기대를 표하는 한편, "직원들이 행정업무로 바쁜 것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관장 희유 스님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열정이 있다. 어르신들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센터가 어르신들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익름 기자**

"자랑스런 軍불자장교로 거듭나겠습니다"

2월 17일 육해공 각 군 사관학교 졸업법회

국가수호의 임무를 위해 군장교의 길에 들어선 불자 사관생도들이 자랑스러운 불제자로 살아가길 서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2월 17일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에서 '육사 72기 졸업 및 임관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남장 김갑영 군승, 국군불교총신대회 사무총장 오원진 장군, 예비역불자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불자 사관생도들은 장쾌함찬한 채 "화랑의 후예로, 부처님의 제자로 삼보전에 귀의하며 자랑스러운 불자로 살아가길 서원하오니 제불보살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지혜의 힘을 복돋아 주옵소서"라고 발원했다. 이어 모범 불자생도들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 · 포교원장 · 군종교구장 · 국군불교총신대회장 표창장이 수여됐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법문에서 "어려운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장교로 임관하는 것을 축하한다"며 "군승법사들과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겠다. 국토를 수호하는 간성(干城)으로, 불제자로 따뜻한 병영생활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같은 날 청주 소재 공군사관학교는 수석사 방장설정 스님을 법사로 졸업법회를 봉행했다. 18일에는 영천 소재 육군3사관학교 졸업법회를 은해사 부주지 보월 스님 주관으로, 19일에는 진해 소재 해군사관학교 졸업법회를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주관으로, 22일에는 대전 소재 간호사관학교 졸업법회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주관으로 봉행했다.

군종교구는 각 군 자대에 배치되는 초임장교 불자들을 해당부대 군승이 방문해 불자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법회활동 참여를 도울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육군사관학교 졸업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불교인재원, 한국불교 주요 조사 특강 마련

2월 26일부터 12주간 전법회관 지하교육관서

한국불교 종지종종의 근원을 파악하고, 한국불교 역사에 획을 그은 주요 조사들을 집중 조명하는 강좌가 열린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2월 26일부터 '2600년 불교, 대중강좌로 이해하는 길-3차 한국불교' 강좌를 실시한다.

(이래래 前한국불교학회장, 3/4) △화엄사상의 중심 의상대사(이병욱 고려대 외래교수, 3/11) △왕오천축국전과 해초대사(고영섭 동국대 교수, 3/18) △조계종주도 의국사와 구산선문(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 3/25) 등 12개 강좌로 구성된다.

이번 강좌는 1차 인도 · 티벳 및 남방 불교, 2차 중국불교에 이은 세 번째 강좌로 5월 13일까지 총 12주에 걸쳐 진행된다. 오대적멸보궁 건립자인 자장율사부터 보조지눌, 태고보우 등을 거쳐 세계 최고(最古) 급속활자본(직지심체요절)을 편찬한 백운경한 선사까지 조명할 예정이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선지식들을 중심으로 2600년 불교 역사를 알아보는 이번 강좌를 계기로 공부하고 정진하는 신행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불교인재원은 향후 재가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9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 선운당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10만원. 1661-1108. **윤호섭 기자**

세부 일정은 △오대적멸보궁의 건립자 자장율사(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 2/26) △해동성자와 무애행의 원효대사

"새 책가방 메고 학교가요! 스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동행 · KB국민카드, 2월 16일 '선재의 선물' 전달식

8살 소녀가 총총 걸어 나와 스님께 합장 반배를 올린다. 머리를 쓰드듬으며 핑크색 새 책가방 어깨에 메어주자 아이의 웃음과 함께 만방에 온기가 퍼져나갔다.

모 · 저소득 가정 어린이 1,580명(남아 849명 · 여아 731명)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 대표로 참여한 어린이 8명 중 김민서(8 · 여) 학생은 "새 책가방을 메고 하루빨리 학교에 들어가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며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라 웃어보였다.

또한 학부모 김경진씨는 "아이가 어느새 자라 책가방을 메고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니 뿌듯하다.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어울리는 학교생활을 하

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이사장 자승 스님과 정성호 KB국민카드 전무가 함께했



(재)아름다운동행은 2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재의 선물-책가방 보내기' 전달 및 포장식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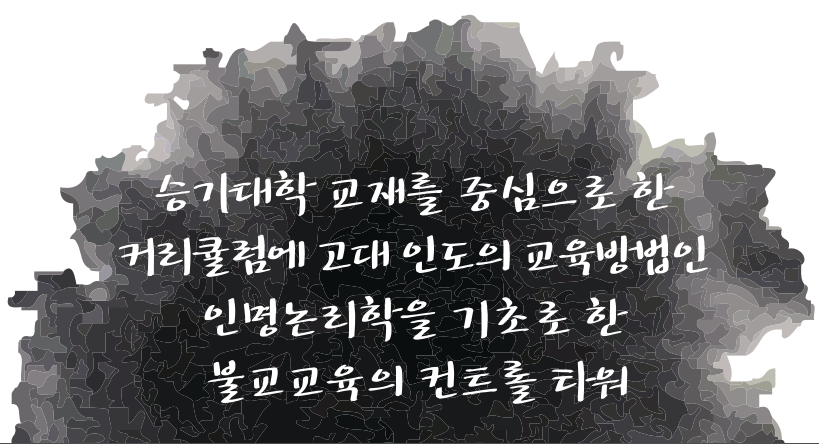
다. 자승 스님은 "심해지는 양극화 현실 앞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자라고 있다"며 "선재의 선물"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만능주의를 거둬내고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의미다. 서로 도우며 행복을 나누는 상생 정신이 확산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무는 "겨우내 움츠렸던 초목에 싹이 돋아나듯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KB국민카드도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박익름 기자**

서울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불교계의 가장 권위있는 학회가 출범시킨 "서울 승가대학" 개강



승가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에 고대 인도의 교육방법인 인명논리학을 기초로 한 불교교육의 권트를 리워

- ◆ 모집인원 : 20명
- ◆ 대상 : 승가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재가자 가능)
- ◆ 학비 : 연 100만원
- ◆ 입학식 : 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정오

- ◆ 강사진 : 학회장 스님과 학회소속 지도교수 외 특강강사
- ◆ 교육과정 : 전문과정 : 2년, 연구과정 : 4년, 교수사과정 : 7년

• 강의시간 : 주 2회 6시간 (금요일 저녁 3시간 · 토요일 오전 3시간)

• 입학문의 : 010-8969-9444 (지암스님) / 010-7225-8426 (명혜스님)